

일본의 근대교육 형성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권영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국문초록

일본의 근대화를 열어젖힌 사건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며 조선 고종 황제는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을 통해서 근대화를 시도하였다. 두 개혁의 결과에 따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나라는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올라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하였고, 한 나라는 주체적인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한 채 치욕적인 망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두 근대적 개혁 사이에는 30년의 시차도 존재하지 않는데 비해 두 개혁의 결과로 두 나라가 받아 든 성적표는 천양지차(天壤之差)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연구는 과연 두 나라의 근대적 개혁 사이에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시간 차이 외에 어떠한 점이 개혁의 결과물을 바꾸고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특히 일본의 19세기 후반 근대화 개혁의 배경이 되는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네덜란드와 일본의 관계를 통해서 들여다보았다. 조선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네덜란드라는 상대국을 통해서 유럽 및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해 왔으며, 그 시기의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력을 활용할 기회를 얻었던 여러 주체들이 속도감 있는 근대화에 단단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 주제어 ■ 종교개혁, 난학, 풍설서, 지력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ymkwon99@knou.ac.kr

I 서론

1868 vs 1894¹⁾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작에 관한 연구의 선상에 놓여 있다. 연구자는 전국 각지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강의 때마다 연구자가 학습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 한 가지는 바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학습자들로부터 합창식으로 나오는 대답은 바로 ‘주입식 교육’²⁾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공통된 대답은 연구자로 하여금 ‘10대부터 80대까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수도권과 강원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학교에서 각기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학습한 학습자들이 왜 모두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과연 우리나라에서 주입식 교육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하여 탐구심을 지니도록 하였다.

1) 1868년은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일어난 시기이며, 1894년은 조선의 갑오개혁(甲午改革)이 일어난 시기이다.

2)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35)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주요섭은 1928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후 1931년에 『조선 교육의 결함』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데 그 책에서 그는 ‘주입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입식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는 생도를 볼 때에 이지(理智)있는 동물로 스스로 경험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나가는 성장성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생도를 이지도 않고 감정도 없고 성장성도 소유치 못하고 그냥 외면에서 무엇이든지 들어오는 대로 받아 간직할 줄만 아는 한낱 통(桶)으로 본다. 그래서 학생은 통이요 교원은 그 통을 채우는 직무를 하는 고용꾼이다. 물을 주입해라하면 물, 쌀을 주입해라 하면 쌀, 흙을 주입해라 하면 흙을 주입한다. 그러면 학생은 교원이 주입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모두 잘 답아서 간직해둔다. 생도라는 통에 모래 구멍이 없어서 주입된 물품을 오래 동안 또는 잘 간직해두면 그는 우등생 겸 천재이고 만일 모래 구멍이 몇 개 있어서 그것이 슬슬 새어버리면 그 생도는 낙제생이 된다(36).

주요섭의 이러한 정의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입식 교육’의 관념에 부합한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교육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본격적 도입·확대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았다.³⁾ 요약하자면, 일제강점기에 형식적으로는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학교 수도 늘어나고 취학률도 급격히 상승하는 등 수치상으로는 ‘교육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제는 조선인들의 학습 욕구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근대식 학교를 확충하지 않아서 발생한 심각한 입시난을 방치함으로써 학교 교실을 심각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조선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교육을 유일한 출세의 길로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교란 곧 상급학교 진학 실적의 좋고 나쁨으로 판가름 났다.

근대교육의 시작 단계에서 고착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해방 이후에도 교정될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종국은 출세우기를 통한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주입식 교육에 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연구자는 해석하였다.

우리나라 근대식 교육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후 연구자는 이어서, 소위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와는 대척점에 선 것으로 여겨지는 ‘바칼로레아(Baccalaureate)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근대식 교육제도가 확립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⁵⁾

3) 권영민 (2021). "일제강점기 학교관 형성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9권 4호 1-21.

4) 프랑스의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

5) 권영민 (2023).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제도 형성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한국교육문제연구』 41권 2호 105-124.

이 연구의 결과는 사실 연구자에게 좌절감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개선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결론적으로, 프랑스 근대 교육제도는 혁명을 통해서, 피흘림을 동반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 공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혁명적 이념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제도를 통해서 ‘통치의 동반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⁶⁾ 그렇기 때문에 포화 속에서 그들은 ‘공교육 제도 설계’를 논의하였고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제3공화국을 통해서 현재 프랑스 공교육의 기초가 된 제도들이 입안되었다.⁷⁾

통치의 동반자로서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프랑스 공교육 제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내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졸업시험인 ‘브르베(Brevet)’⁸⁾와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⁹⁾가 고안되었다. 결론적으

6) 프랑스 공교육 제도에 교육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니콜라 드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는 공교육에 관한 두 번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의 교육만으로도 모든 시민이 공무에 임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모든 행정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공무를 떠맡을 수 있어야 한다”(Condorcet, 1791/2019, 67쪽).

7) 현재 프랑스 공교육 제도의 근간은 1879년부터 1885년까지 교육부 장관과 수상으로 프랑스 초등교육의 근간이 될 법안들을 발의·통과시킨 쥘 페리(Jules Ferry)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김정인, 2017: 147). 1877년부터 1886년까지 초등교육 전체 구조에 관한 법이 통과되던 시기가 ‘페리의 시대(le temp de Jules Ferry)’로 불리울 만큼 페리의 공헌이 지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형식적 개혁의 원동력이 된 내용적 근간은 18세기 후반 지롱드파의 일원으로 프랑스 혁명에 일조한 콩도르세가 국민 의회에 보고한 『공교육에 대한 개혁안』과 『공교육에 관한 다섯 논문』이라 할 수 있다(이윤미, 2014: 154).

8) 브르베 시험은 교사 평가(수행 평가) 400점 + 졸업 시험 400점으로 이루어지며 40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졸업 시험 4개 과목은 ‘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도덕과 윤리교육, 과학(물리화학, 지구과학, 기술 중 택 2)’이다(권영민, 2023, 115-116쪽).

9) 바칼로레아 시험 역시 중학교 졸업 시험인 브르베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와 시험의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수행평가 과목은 제 1, 2 외국어, 역사지리, 체육, 과학, 수학, 시민정신 등의 교과목이

로 바칼로레아 시험은 그 성격부터 대학 입학에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수능시험과는 다르다. 바칼로레아에 합격한 학생은 프랑스 사회에서 시민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거쳐 연구자의 시선은 우리에게 잘 못된 근대식 교육제도의 뿌리를 이식해 놓고 떠난 일본의 근대 교육의 전개 과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애초에 연구자가 이번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주제는 일본의 근대화를 열어젖힌 사건인 1868년 메이지 유신 막전막후에 교육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기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1868년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조선 말 1894년 고종 황제의 근대화 개혁인 갑오개혁이 시기상으로 30년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30년이라는 차이는 매우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다. 국력의 경우도 부와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차이는 물리적인 시간 차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초에 연구자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주목하고자 했던 시기는 바로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시기였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초창기 의도와는 다르게 연구자의 시선은 계속적으로 과거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본론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비록 일본의 교육적 근대화는 실질적으로는 19세기 후반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이루어졌

있으며 시험평가 과목은 프랑스어, 전공 교과목, 철학, 전공 구술시험 등이 있다. 평균 점수 10점 (20점 만점) 이상일 경우 시험에 통과하며 탈락 점수는 따로 없다(권영민, 2023, 115-116쪽).

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준비를 위한 토양은 길게는 이전의 300여 년 동안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메이지유신과 갑오개혁 사이에는 30여 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차 뿐만이 아니라 300년 이상의 보이지 않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1543년 일본 규슈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인 다네가시마에 포르투갈인 한 무리가 처음 발을 디딘 이후 일본은 단 한 순간도 전 세계와 연결된 끈을 놓지 않았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 우연적 요소들과 일본 정치인들의 적절한 판단(비록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본의 교육적 근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일본의 근대화와 유럽 대륙에서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후 교육 근대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난학(蘭學)¹⁰⁾의 수용과정과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일본 막부의 세계 정세 수집 문서인 네덜란드 풍설서(風說書)¹¹⁾의 의미와 전개 과정을 논의하겠다.

10) 근세 일본에서 네덜란드에 관한 또는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지식들을 연구하는 학문의 통칭.

11)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바람을 타고 흘러온 말을 기록한 것.'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시켰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 혹자는 ‘내가 아는 종교개혁의 루터 말고 다른 루터라는 인물이 있는가 보다’라거나 ‘일본이 아니고 유럽을 잘못 쓴 문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닌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주창자인 루터가 일본을 방문했다거나, 일본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거나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매우 뜻밖에도 연구자는 일본의 교육적 근대화 과정을 추적하던 도중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이 결정적 변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유럽 종교개혁 발생과 일본 근대화 과정의 관련성이다.

1517년 독일의 성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의 상업성을 비판하며 뷔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종교개혁의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애초에 루터 본인이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질 정도의 혁신적 개혁을 염두에 두고 반박문을 게시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루터의 움직임에 결국 새로운 종교의 등장으로까지 이끌어 가게 만들었다.

1000여 년 간 유럽 대륙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톨릭 세력은 종교개혁 이후 북유럽에서 종교적·정치적 세력을 잃게 되었다. 물론 그 잃음이 단번에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 종교

개혁 이후 유럽 대륙 전역은 역사상 가장 대표적이지 잔혹한 종교전쟁으로 빠져들게 된다.¹²⁾ 그리고 마침내 1648년 역사상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 기록된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성공으로 마무리 된다. 1517년 루터의 반박문 게시로부터 130여 년이 지나서야 종교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종결된 것이다.

종교개혁에 즈음하여 세력을 정비하기 위해 가톨릭에서는 예수회¹³⁾를 결성하였고, 대항해 시대와 맞물려 유럽 대륙을 벗어나 전 세계로 세력 확장을 도모하게 된다. 그 시기에 많은 예수회 신부들이 군인들을 동반하여 인도를 거쳐 아시아 대륙으로 향했는데 그 중 일부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중국, 일본에까지 당도하게 된다.¹⁴⁾

1543년 8월 25일, 일본 규슈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인 다네가시마에 포르투갈인 한 무리가 탄 배가 도착했다. 기록상으로 이들은 일본에 처음 발을 디딘 유럽인들이다(이종각, 2013, 36쪽). 마침 이 배에는 그 당시는 최첨 무기라 할 수 있는 조총¹⁵⁾이 실려 있었고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12) 이후 ‘30년 전쟁’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으로 유럽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 하나였으며, 사망자 수는 약 800만 명이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와 맞먹는 수치이다.

13) 1539년 이냐시오 데 로올라(Ignatius of Loyola)에 의해 창립되어 선교사 지원 활동, 복음화, 연구와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14) 최초로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 입국을 시도한 선교사는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선교사 가스파르 빌렐라(Gaspar Vilelar)였다. 그는 1571년(선조 4)에 조선 입국을 시도하였지만 당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혼란에 빠져 있던 일본 국내 사정으로 인해 좌절되었다(우리역사넷 선교사의 파견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ld=km_030_0060_0030_0010&whereStr=).

15) 16세기 초반에 스페인에서 개발된 아퀴버스(arquebus)에서 유래된 소총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배에는 가늘고 긴 원통에 구멍이 난 물건이 있었다. 구멍 끝에서 불을 뿜으며 큰 소리가 나자 공중을 나는 새¹⁶⁾가 떨어졌다. 화승총, 즉 조총이었다. 놀란 섬사람들이 영주에게 보고했고, 이에 영주는 포르투갈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비싼 값을 주고 그 총을 샀다. 또 영주는 가신들에게 총 사용법과 제조법을 배우게 했다. 《철포기》라는 일본 문서에 실린, 일본에 총이 전래된 일화다(이종각, 2013, 36쪽).

‘조총 기술’을 앞선 기술로, 배워야 하는 무언가로 판단한 이 영주의 결정은 이후 일본의 전국 통일 과정에서도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16세기 일본 전국 통일의 목전까지 승전을 이어갔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부대의 주된 전략은 조총을 활용한 전략이었다. 당시 조총의 경우 단 한방으로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전쟁 무기임에는 틀림 없었지만, 가장 큰 기술적 단점은 재장전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부대를 3열로 배치하는 전술¹⁷⁾로 나름 재장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극복하여 파죽지세로 일본 전역을 휩쓸어 나갈 수 있었다.¹⁸⁾

서양으로부터, 특히 포르투갈 사람으로부터 얻은 좋은 기술로 승전보를 이어감에 따라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과 함께 들어 오게 된 가톨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16) 조총의 한자어는 鳥銃이다.

17) 발포조 - 대기조 - 장전조

18) Stephen Scott (Producer). (2021). Age of Samurai: Battle for Japan [Television documentary]. Netflix.

1549년, 스페인 예수회 선교사 프란시스코 사비에르(Francisco Xavier, 1506-1552)가 규슈 남단 가고시마에 중국 배를 타고 도착했다. 동남아시아에 출몰하던 일본 해적 등과 알게 돼 일본으로 온 그는 다이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히라도, 야마구치를 거쳐 수도인 교토 지역까지 포교 활동을 벌였다. 기독교가 일본에 처음 전파된 과정이다.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가 일본을 방문했고, 성당인 남만사를 비롯해 선교사 양성 학교 등도 세워졌다.

그 결과 사비에르가 포교를 시작한 지 20년째 되는 해에는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인 교토 인근 기나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 200곳 이상에 성당이 생겼고, 신도도 15만여 명에 달하는 등 기독교가 크게 신장해 갔다.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고 부하에게 살해당한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 등으로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독교에 관용적이었고, 유럽과의 무역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이종각, 2013, 37-38쪽).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실질적으로 일본 전국 통일이라는 과업을 달성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경우에도 서양 문물과 기독교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이어나갔다. 실제 16세기 말 일본 전역의 기독교 인구는 2퍼센트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다(이종각, 2013, 39쪽). 이는 현재 일본 내 기독교 신도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일으켰던 임진왜란의 선봉장 중 한 명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누스인 가톨릭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19)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후 전투에서 패배의 책임으로 할복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가톨릭 신자는

16세기 초부터 이어져 온 서양 문물의 수입과 무역은 16세기 후반 스페인이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한다는 첩보에 의해 변곡점을 맞이한다(이종각, 2013, 39쪽). 1612년 기독교 금지령과 성당 파괴 명령이 막부로부터 내려졌고, 1639년에는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금지하고, 1641년 나가사키 항구 앞에 있는 작은 인공 섬(약 4000평) 데지마에 살게 한 포르투갈인들을 기독교를 전파하려 한다는 이유로 추방했다(이종각, 2013, 41쪽).

1543년 8월 다네가시마에 포르투갈인 한 무리가 탄 배가 도착한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일본과 유럽의 교류는 100여 년 만에 파국의 위기에 처하였다. 이 100여 년 간의 교류가 특히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조총 기술의 도입은 일본 전국 통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임진왜란에서도 파죽지세의 진격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막부는 대유렵 은(銀) 수출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²⁰⁾

따라서 막부 입장에서도 스페인·포르투갈 세력의 추방은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역에서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선택’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부의 두 가지 필요, 즉 ‘무역에서의 이득과 가톨릭으로부터 정권의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네덜란드이다.

다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서 스페인령이었던 네덜란드는 1568년에 독립을 선언한다. 1517년 루터가 뷔텐베르크 성

자결할 수 없다’하여 참수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tephen Scott (Producer). (2021). Age of Samurai: Battle for Japan [Television documentary]. Netflix.).
20) 16-17세기 일본은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은(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당에 반박문을 게시한 지 50여 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장장 80여 년에 걸쳐 독립전쟁을 이어 나간 끝에 마침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17세기 초반 네덜란드는 아시아 해양 곳곳에서 스페인·포르투갈 등과 세력다툼을 벌일 정도로 역사상 국력이 가장 강성한 시기를 맞이하였는데, 일본에서도 히라도에 상관(商館)을 두고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독교 포교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 스페인·포르투갈 세력이 1641년 일본 데지마 상관에서 추방되자마자 네덜란드는 곧바로 상관을 히라도에서 데지마로 옮겨 대유럽 무역의 대체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네덜란드가 어떻게 이 시기에 가톨릭 유럽 세력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었는가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데지마에서의 무역 허가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1641년 5월 에도에 상경한 네덜란드 상관장 막시밀리아 러 메리(Maximiliaan le Maire)는 쇼군으로부터 두 개조의 명령을 받게 된다.

제1조는 네덜란드선의 입항은 향후 나가사키에만 허용되며 장사도 나가사키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2조는 만일 네덜란드선 혹은 다른 배에 가톨릭 교도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말해야 하며, 만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선의 일본 도항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다(松方冬子, 2010/2023, 61쪽).

다시 말해 네덜란드는 ‘스페인 세력이 믿고 전파하고자 하는 가톨릭을 우리는 믿지 않고, 우리는 선교에는 전혀 관심을 기

올이지 않고 무역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취했고 막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네덜란드의 접근은 무역에서의 이득도 유지하고, 가톨릭 세력의 위협도 방지한다는 일거양득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이 딱혀 들며 네덜란드는 스페인·포르투갈 세력이 물러간 데지마 상관에 무혈입성하게 된다.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세계와의 연결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네덜란드는 19세기 후반 일본이 미국(미일 화친조약, 1854)을 시작으로 서양 국가들에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에도시대 200여 년간 유일한 그리고 공식적인 서양 세력이었다. 200여 년 간 네덜란드와 일본의 관계는 공생관계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네덜란드는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였던 일본의 대유럽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막부의 경우 네덜란드를 통해서 대유럽 은 수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스페인·포르투갈 가톨릭 세력의 재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 장의 제목을 연구자는 ‘일본의 근대화와 루터 종교개혁의 연결고리’라고 정하였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네덜란드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가톨릭 세력의 세계 진출 등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일본과 유럽의 만남 또한 늦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대항해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었더라도 유럽과 일본의 만남은 그 즈음하여 언젠가는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과 일본의 만남 그 자체에 루터 종교개혁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독교 박해로 인한 스페인·포르투갈 세력 축출의 과정에서 네덜란드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루터 종교개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계기로 하여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1648년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네덜란드가 스페인·포르투갈 세력을 대체하며 상관을 히라도에서 데지마로 옮긴 1641년은 30년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을 시점이었다.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 못지 않게 아시아 해역에서도 두 세력은 각축을 벌이고 있었으며 그 갈등의 큰 시발점 중의 하나가 종교였기 때문에 막부 입장에서 네덜란드야말로 스페인·포르투갈 세력을 여러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기 충분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는 루터로 기인한 여러 사건들 덕분에, 가톨릭 세력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일본에서 내쫓기지 않고 서구와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고, 네덜란드와 일본의 연결고리는 훗날 19세기 후반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 여러 가지 밑거름을 제공하게 되었다.

Ⅲ 난학의 발전

15-16세기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지나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 시대를 열어 짓히며 일본은 이후 약 2세기 반 동안 비교적 큰 혼란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17세기 초 가톨릭 세력의 축출과 함께 쇄국정책이 서양을 향한 기본적인 외교정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제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는 서양 문물에 큰 관심을 보이며,²¹⁾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양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쇄국정책 중 하나였던 금서의 영을 철폐하여 기독교와 관계없는 서양 서적과 물품 수입을 허가하였다. (이종각, 2013, 44쪽)²²⁾

또한 요시무네는 당시 저명한 유학자 아오키 곤요(青木昆陽, 1698-1769)로 하여금 네덜란드어를 배우게 하였고, 막부의 관의에게는 네덜란드 의학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시했다(이종각, 2013, 45쪽).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서양 의학 기술을 지닌 ‘오란다²³⁾류 의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 역시 그 중 하나였다. 부친에 의해 오란다 의학에 입문하게 된 겐파쿠는 1771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바마 번

21) 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요시무네는 외국 서적에서 본 코끼리에 흥미를 느껴 베트남에서 코끼리를 수입하도록 했다고 한다. 나가사키를 통해 상륙한 인도코끼리는 약 두 달 동안 걸어서 에도까지 갔다. 교토에 들렀을 땐 천황이 코끼리를 구경한 뒤 ‘광남중사위백상’이란 귀족에 해당하는 관위를 수여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로선 진기한 외국 동물인 코끼리 행차는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고, 이는 섬에 갇혀 사는 일본인들의 외국에 대한 흥미를 촉발하는 일이기도 했다(이종각, 2013, 45쪽).

22) 이로 인해 서양 의학서를 비롯해 천문, 지리, 역법 등의 각종 서적이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왔고, 무기, 선박, 시계 등도 수입이 가능해졌다(이종각, 2013, 44-45쪽).

23)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지방인 Holland의 일본식 발음.

간부급 의사로 승진하였다.

한편 에도시대 유일한 서양 교역국이었던 네덜란드의 상관 일원들은 평소에는 나가사키의 작은 인공 섬 데지마에서만 생활해야 했지만 매년 봄 상관장 일행은 여러 수행원을 동반하여 에도에 가서 쇼군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서양의 진품을 헌납했다(이종각, 2013, 23쪽).

평소 네덜란드 의학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겐파쿠는 1771년 봄 상관장 일행을 통해서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네덜란드 인체 해부서를 확보하게 된다. 네덜란드 인체 해부서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양의 인체 해부서와 달랐기 때문에 겐파쿠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사형수들의 신체를 활용해 가끔 진행되던 인체 해부를 참관하게 된다.

그 곳에서 겐파쿠는 서양의 해부서가 실제 인체를 매우 정확하게 그려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후 제대로 된 기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겐파쿠는 뜻을 같이하는 여러 오란다류 의사들을 모아서 작업을 시작하려 하였지만 문제는, 그들 모두의 네덜란드어 실력이 형편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한 동료가 네덜란드어 알파벳을 겨우 아는 정도였다. 다음과 같은 일화를 겐파쿠는 기록해 놓았다.

예를 들어, ‘우에인부라우(눈썹)는 눈 위에 나 있는 털’이란 문장 하나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긴 봄날 하루 종일을 매달렸으나 알 수가 없었다. 이처럼 해가 질 때까지 생

각해 보고, 서로를 쳐다 봐도, 한 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장조차 풀 수 없었다.

또 어느 날 ‘코’ 부분에서 ‘코는 후루헛헛하고 있는 것’이라고 쓰인 부분에 이르렀을 때다. 그런데 이 말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모두 생각을 맞춰봤지만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물론 그때는 ‘워르덴부쿠(사전)’라는 것도 없었다.

다만 료타쿠²⁴⁾가 나가사키에서 구해 온 간략한 소책자가 있어, 그것을 보니 ‘후루헛헛도’를 ‘나뭇가지를 잘라 놓으면 후루헛헛도’ 하고, 또 마당을 쓸면 먼지와 흙이 모여 ‘후루헛헛도한다’ 같은 설명이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무슨 뜻인지 모두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나뭇가지를 자른 뒤 그대로 두면 쌓이고, 마당을 쓸고 먼지와 흙이 모이면 이것도 쌓여서 높아진다. 코는 얼굴의 한가운데 높이 솟아 있으므로, 후루헛헛도는 ‘솟아올랐다’는 뜻일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말은 ‘높게 쌓이다는 뜻의 퇴(堆)’로 번역하면 어떻겠느냐고 일동에게 물으니, 모두 말 그대로라면서 그렇게 번역하기로 정했다. 그때의 기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고, 귀한 보물이라도 손에 넣은 것 같았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궁리해 가며 번역어를 정했다(이종각, 2013, 229-230쪽).²⁵⁾

그들의 번역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약 3년 반 만에 번역의 결실을 보게 된다.²⁶⁾ 일

24)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 1723-1803), 스키타 겐파쿠와 함께 주된 번역 작업에 동참한 인물. 나카쓰 번의 시의로 네덜란드어를 공부한 매우 학구적인 의사(이종각, 2013, 26).

25) 오늘날처럼 ‘번역(翻譯)’이라는 개념조차도 명확치 않고 외국어 실력도 변변치 않은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보이는 작업에 착수하여 성공할 수 있었는가 경이로운 심정까지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성공 역시 1641년부터 유지되어 온 네덜란드와의 관계에 기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네덜란드어 통역사들이 나가사키에서 대를 이어 활동해 왔고, 여러 오란다류 의사들은 나가사키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26) 《해체신서(解體新書)》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독일의 의대 교수 요한 아담 쿨무스(Johan Adam Kulmus, 1689-1745)의 《Anatomische Tabellen(1722년 초판)》이 독일어 원본이다(이종각,

개 의사와 일군의 동료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일구어낸 최초의 네덜란드어-일본어 번역 의학서의 결실은 이후 네덜란드어로 된 전반적인 학문의 연구로 발전해 나간 ‘난학’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겐파쿠와 동료들의 이러한 결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겐파쿠 문하로 몰려들었다. 겐파쿠의 문하생들은 에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난학자들로 평가받았으며 문하생 중 하나인 오쓰키 겐타쿠(大槻玄澤, 1757-1827)는 1811년 네덜란드어 서적을 번역하는 ‘만서화해어용(蛮書和解御用)’이라는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겐타쿠는 난학자로서는 사상 처음 막부에 기용되었고 2년 후에는 야스오카 겐신(安岡玄眞, 1769-1834)도 기용되었다(이종각, 2013, 154쪽).

또한 난학을 가르치는 사숙인 난학주쿠(蘭學塾)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서양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들 주쿠에서 신학문을 배웠다.²⁷⁾ 이들 난학주쿠 출신들은 그 후 막부 말기와 메이지유신 시대에 걸쳐 일본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⁸⁾

우연히 입수한 네덜란드 해부서를 지니고 시체 해부 참관을 하고 과감히 번역을 결단하였을 당시 겐파쿠는 자신이 난학의 개척자가 되어 학문의 부흥을 이끌고 이후 학문 후세대가 나라

2013, 57쪽).

27) 1820년대 중반, 나가사키 네덜란드 상관의 의사로 부임해 온 독일인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06)는 나가사키에 의학을 가르치는 나루타키주쿠를, 난방의 인 오가타 고안(緒方洪庵, 1810-1863)은 오사카에 데키주쿠를 열어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이종각, 2013, 187쪽).

28) 특히 30년간 문하생 이천여 명에 이르렀다는 데키주쿠 출신 가운데 많은 인재가 배출됐다. 근대 일본 육군을 창설한 오무라 마쓰지로(大村 益次郎, 1824-1869),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등이 특히 유명하다. 유키치는 막말유신시대에 활약한 저명한 교육가이자 계몽사상가로 일본의 교육은 물론 근대화와 일본의 제국주의 노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이종각, 2013, 187-188쪽).

의 근대화까지 이끌어 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쇼군의 해안과 결단이 사회적 분위기를 이끈 측면은 있지만 ‘한 개인 의사’의 무모한 결의는 나비효과가 되어 일본의 교육적 근대화 촉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젠파쿠는 노년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다.

돌이켜 보면 사실은 국내의 평화 덕분이다. 아무리 학문에 열심인 사람이 있어도 세상이 전란에 휩싸여 싸우는 와중이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해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1815년은 이에야스 공 서거 200주기에 해당된다. 공이 천하를 통일해 이 나라에 오랜 기간 평화를 주셨다. 그 깊고 넓은 은혜가 나같이 나라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자에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나와 난학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이종각, 2013, 156-157쪽).

일본 과학사가들은 에도시대 난학이 발전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 서양 학문이 일본보다 진보, 발전했음을 당시 지식인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며, 일본의 과학 지식은 난학을 통해, 외국 지식을 흡수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갔다고 설명한다(이종각, 2013, 186쪽).

IV 풍설서

1641년 히라도에 있던 상관을 데지마로 옮기며 네덜란드는 200년 이상 공식적으로는 유일하게 일본과 서양 세계의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막부 입장에서 네덜란드라는 존재는 ‘유럽과의 무역도 유지하고, 가톨릭 세력도 견제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최상의 상대국이었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무역 허가의 반대급부로 네덜란드 측에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였다(松方冬子, 2010/2023, 61쪽). 전술하였듯 17세기 초 네덜란드는 국력이 매우 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시아 여러 해양에서는 스페인·포르투갈 세력의 경쟁자로 자리 잡았고, 국내외 정보 유통에 있어서도 또한 매우 두각을 나타냈다. 기록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현재의 신문에 가까운, 여러 유럽지역의 뉴스들을 모은 간행물이 발행되었다(松方冬子, 2010/2023, 105쪽).²⁹⁾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일본 막부가 네덜란드로부터 가톨릭 세력의 동향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행운이라 할 만하다.

매년 여름 바타비아(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출발한 네덜란드 배가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선박이 도착하면,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장과 네덜란드선의 선장이 나누는 대화를 일본인 네덜란드 통역사³⁰⁾가 기록한 후 이후 그것을 일본어로 번역하였

29) 이러한 정보 유통 발전의 배경에는 인쇄업의 융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경 인쇄를 위한 것이었다(松方冬子, 2010/2023, 106쪽). 넓게 보았을 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지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에도 시대에는 통역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통사(通事)라고 불렀으며 그들은 조합을 이루고

다(松方冬子, 2010/2023, 41쪽).³¹⁾

이처럼 번역되어 기록된 문서들은 훗날 ‘풍설서(風說書)’로 불리게 된다. 풍설서는 문자 그대로 ‘바람을 타고 실려온 소식’이다. 1641년부터 시작된 이 풍설서의 기록이 1859년까지도 유지되어온 것으로 여겨진다(松方冬子, 2010/2023, 34쪽).

애초에 막부가 네덜란드로부터 가장 얻고자 했던 정보는 ‘가톨릭 세력의 동향’에 관한 것이었다. 막부는 가톨릭 세력이 호시탐탐 일본 재진출을 노려 국가 운영을 다시 위협에 빠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네덜란드를 통해서 미리 첩보를 입수하여 가톨릭 세력의 접근을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창기 풍설서의 내용은 포르투갈 세력의 일본 재진출에 대한 첩보가 주를 이룬다.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내고 히라도에서 데지마로 네덜란드 상관을 옮긴 첫 해, 네덜란드 상관장 러메러는 포르투갈인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일본 무역 부활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나가사키 부교에게 보고한다(松方冬子, 2010/2023, 64쪽). 이것이 네덜란드 풍설서 1호라고 할 수 있는 문서이다.

비록 풍설서가 막부의 요구에 의해 네덜란드가 여러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네덜란드가 일본의 대유럽 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정보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1660년대 프랑스 동인도회

있었다(松方冬子, 2010/2023, 215쪽).

31) 기록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애초부터 무역을 목적으로 일본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굳이 일본어를 가르치는 비생산적인 수고를 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입국하였고 또한 많은 신자들을 배출해내었기 때문에 종교교육의 목적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포르투갈어를 학습하였다. 그래서 초기 네덜란드가 데지마에 상관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네덜란드인과 일본인 간의 대화는 포르투갈어를 익힌 일본인의 중역(重譯)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松方冬子, 2010/2023, 239쪽).

사 설립과 일본에 사절이 파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지만 이 소식을 제때 막부에 전달하지 않는다. 또한 1673년 영국이 통상 재개를 위해 선적을 나가사키에 파견하는데 네덜란드는 영국 왕가와 포르투갈 왕가의 혼인에 의한 인척 관계를 막부에 미리 알려 통상 재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다(松方冬子, 2010/2023, 101쪽).

시간이 지나며 포르투갈·스페인이 세력을 잃으면서 가톨릭에 대한 막부의 두려움은 줄어들었다. 이 때부터 풍설서를 통해 막부는 근대 유럽의 정세에 대해 듣기를 원하였다.

18세기에 접어들며 네덜란드는 국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영국과 프랑스 세력이 강력해진다. 이렇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일본 무역 독점에도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특히 1780년에 발발한 영란전쟁의 패배로 네덜란드의 해운, 무역, 금융업 등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松方冬子, 2010/2023, 119쪽).

19세기 중반까지도 유지된 풍설서를 통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관한 소식, 영국과 러시아 선적의 내항 정보도 막부는 미리 입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이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아편전쟁의 정보,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전면적 개항을 촉발한 미국 페리함대의 내항 정보³²⁾도 미리 전해 들을 수 있었다.

32) 1853년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가 일본에 파견되어 1854년 3월에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1852년 이미 네덜란드 풍설서를 통해서 내항 정보를 입수하였다.

V 논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1868년 일본의 근대화 개혁인 메이지유신과 조선 고종 황제의 1894년 갑오개혁 사이에 28년 차이라는 수치상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애초에 연구자는 연구계획을 통해서 메이지유신 이후에 벌어진 교육 개혁의 과정과 갑오개혁 이후에 벌어진 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양국을 한 나라는 식민 지배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으로 등장시키고 다른 나라는 뼈아픈 망국과 식민 통치의 역사로 이끌고 간 결정적인 차이는 그 이전 몇 백 년간에 일어났던 일들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야를 과거로 돌리게 되었다.

연구자가 일본에 대한 특수한 민족 감정을 지닌 채 교육을 받아 왔고 실제로 그러한 분위기의 사회 속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는 탓이겠지만, 연구 결과 분석에 있어서 일본의 우수한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우수성의 측면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체계의 측면에서 두 나라 사이에 발생한 결과적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력의 독립적 사용과 다층적 위탁’

유럽인들이 일본 땅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1543년은 일본

역사에 있어서는 전국시대(戰國時代)가 한창인 시기였다. 각 지역의 영주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실제로 오랜 내전 속을 통과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인들이 가지고 온 ‘조총(鳥銃)’이라는 무기는 영주에게 있어서 전쟁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선진 기술로 여겨졌을 것이다. 영주 입장에서 포르투갈인들의 피부색이나 종교, 입항 목적 등보다도 선진화된 무기가 눈에 먼저 들어왔을 것임이 분명하다. 영주는 곧바로 포르투갈인들을 용송히 대접하고 조총을 구입한 후 가신들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 총기 제조가 가능하도록 했다.³³⁾

기록에 따르면 명(明)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먼저 유럽 세력과의 교전을 통해 조총을 입수하였지만 그 가치를 바로 알아보는 못했던 것 같다. 조선의 경우도 16세기 중후반 들어 왜관이나 대마도 등을 통해 조총을 접할 기회가 있었으나 전술적 단점(재장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도입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나가사키 영주에 의해 기술이 도입된 이후 일본 전역으로 기술이 퍼져 나가, 전술한 대로 오다 노부나가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는데 결정적인 무기로 활용되었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조선에서도 어떤 개인은 아마도 조총 기술의 우수함을 포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중앙 집권적 왕정이었다고 또한 국가적으로는 ‘명’이라는 대국을 섬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개인이 무기를 사적

33) 현대 공학 용어로 하자면,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시도하였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 정부 규모에서도 이 정도의 기술력은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곧 반역 도모로 의심을 사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사병(私兵) 개념조차도 없기는 하였겠지만, 개별적 신무기, 그것도 오랑케로부터의 기술 도입 결정을 어떤 개인이나 지방 단위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 구조, 분위기였음이 틀림없다.

규슈 지역의 영주가 개별적인 판단으로 조총 기술의 역설계에 성공하였다면 그 기술이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도록 만든 데에는 오다 노부나가야의 기여가 존재한다. 그는 조총의 전술상의 치명적인 단점, 즉 재장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삼단사격(발포조-대기조-장전조) 전술’을 도입·구사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본 전역을 통일해 나갈 수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야의 뒤를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질적으로 전국 통일을 완성한 이후 일본은 명나라 침공을 위해 조선 땅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은 왜군이 사용하는 조총 활용 전술에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왜란 도중에서야 조선은 조총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였으며 왜란 이후에 북방 민족의 정벌에 있어서 그 기술을 활용하여 승전을 올렸다고 한다.

서양인들이 들여온 무기에 힘입어 세력을 강화하여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었던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있어서 조총과 함께 서양인들이 들여온 가톨릭이라는 종교 역시 애초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었다.

‘서양이 무언가 좋은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인식, 아니 서양으로부터도 무언가 배울 것이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자신들

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이 인식'이 향후 제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과감히 쇄국 정책을 완화하게 된 것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반면 조선의 경우는 유럽인들에 대한 명나라의 하대 인식이 그대로 공유되었기 때문에 서양의 것을 들여와야 한다는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³⁴⁾ 재차 강조하지만, '서양'에 대한 판단 역시 조선은 명의 판단에 의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기타 겐파쿠로부터 시작된 난학의 발전 과정 역시 개인의 지력이 십분 발휘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겐파쿠가 네덜란드 의학을 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부에서 쇄국 정책을 완화한 것이 제일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중국 서적과 서양 서적에 나타난 인체해부도의 차이를 이상히 여겨 시신 해부 절차 참관을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호기심에 기반을 둔 행위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시체 해부를 담당하는 노인에게 다른 장기도 물어 보았다. 노인은 자신도 이름을 모른다면, 다만 젊었을 때부터 여러 사람을 해부해 봤지만 반드시 그 부분엔 같은 장기가 있었다고 했다. 노인은 지금까지 “후와케를 보러 온 의사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 주었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이종각, 2013, 33쪽).

34) 아편전쟁 이전까지도 강력한 중화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겐파쿠는 오바마번의 수석 의사로서 정확한 의술을 펼쳐야 한다는 신념 하에 네덜란드어에 대한 기초지식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동지들을 모아 네덜란드 해부서 번역에 착수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그 작업을 완수해 낸다. 다른 어떤 주체가 겐파쿠로 하여금 번역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이 결정은 순전히 겐파쿠를 중심으로 한 몇몇 동료들의 개별적 결단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비록 막부에서 금서령을 풀고 서양 서적의 부분적 수입을 허락하기는 하였지만 서양 서적을 번역하여 출간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겐파쿠 역시 확신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체신서》 출간 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홍모담》³⁵⁾이라는 책이 발금 조처를 당하고 저자가 문책당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종각, 2013, 89쪽).

그리하여 본서를 출간하기 전에 ‘해부도’를 ‘선전용 전단’ 형태로 발매하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막부 및 사회 분위기를 살핀 후 《해체신서》 본서를 발간하게 된다.

일본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서양과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조선도 네덜란드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의도적이거나 집단적인 어떠한 종류가 아니라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만남에 지나지 않았다.

인조 6년(1628) 바타비아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벨테

35) 《해체신서》 출간 6년 전인 1765년, 《홍모담》 발매 금지 사건이 있었다. 당시엔 ‘붉은 머리(紅毛)’는 서양, 즉 네덜란드를 뜻하는 말이고 네덜란드인을 ‘붉은 머리 사람(紅毛人)’이라고 했는데, 《홍모담》은 네덜란드에 관한 이야기를 묶은 책이었다. 저자가 네덜란드 상관장 일행이 에도에 올 때마다 수행원들로부터 전해 들은 네덜란드의 풍속, 산물 등을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부는 이 책에 발금 처분을 내렸고, 저자를 문책했다. 필기체, 활자체, 고딕체로 쓰인 서양 문자 알파벳이 책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이종각, 2013, 77-78쪽).

브레이(Weltevree, 1595-?)라는 선원이 제주도에 표류하게 된다. 애초에 조선은 ‘이방인’을 명이나 일본으로 추방코자 하였으나 당시 두 나라의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이송하게 된다. 그는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훈련도감에서 근무하며 결혼하여 귀화하였고, 이후 ‘박연’이라는 한국 이름을 이후에 갖게 되었다(이종각, 2013, 172).

약 30년 후인 효종 4년(1653)에는 상선에서 근무하며 나가사키로 향하던 하멜(Hamel, 1630-1692)과 그 일행 30여 명이 제주에 태풍으로 표류하게 된다. 이들 역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벨테브레이와 마찬가지로 훈련도감에 소속된다. 이후 탈출하여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네덜란드로 돌아가 출간한 《표류기》는 한국을 처음 서양에 소개한 글이다(이종각, 2013, 172쪽). 하멜 일행이 조선 땅에 당도하였을 때 이미 조선에 정착해 있던 박연이 통역을 한 것으로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 왕실의 기본 정책이 쇄국 정책이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등장했을 때에는 그 처분을 명나라에 맡기는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도모하거나 그들이 가져다 줄 기술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겐파쿠가 《타펠 아나토미아》 번역 작업을 진행하던 시기는 조선의 영조(1724-1776), 정조(1776-1800) 시대에 해당한다. 조선에도 겐파쿠와 마찬가지로 서양 문명을 익히고자 했던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홍대용은 35세 때인 1765년(영조 41년)에 중국에 사신 수행원으로 파견되어서 《을미연행록》을 남겼다(이종각,

2013, 173쪽). 그는 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기도 하였고 선교사들과 서양 윤리와 학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천체망원경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홍대용은 연암 박지원과 함께 신문물 도입을 주장한 북학파 선구자로 기록되어 있다(이종각, 2013, 175쪽).

하지만 이러한 개별 학자들의 중국 방문으로 인해 증폭된 학문적 호기심과 열망은 조선 왕실의 기본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큰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나가사키를 통해서 매년 신문물이 유입되었던 일본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서양 지식을 기초로 한 학문을 발전시킬 여건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면에는, 앞서도 언급하였던, 유럽인에 대한 중국의 낮은 평가 역시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의 이러한 신화는 아편전쟁 시기까지 이어졌다. 조선은 국가의 외교적 결정까지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외교적 결정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조총 기술의 도입이나, 조총을 활용한 전술의 개발, 네덜란드 의학 서적의 번역 결정 등의 사례는 비교적 개별적인 지력이 발휘된 사례라면, 풍설서의 경우는 일본 막부의 집단적 지력이 발휘된 사례이다.

조선의 경우 명이라는 강대국과 지리적으로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단점도 있었으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식적으로 명나라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명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취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현실은 조선과는 매우 달랐다. 대륙과 접하고 있지 않은, 사방이 뚫려 있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기댈 만한 강력한 존재가 없었으며 독자적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막부는 어쩔수 없이 스스로 외교적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네덜란드 측에는 무역 독점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년 세계 정세 보고서를 올릴 것을 요구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풍설서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정세 보고서에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공식적으로 풍설서는 막부가 네덜란드를 통해서 초창기에는 가톨릭 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 18세기 후반 이후로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통해 외교적 대비를 미리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일본 막부의 이익이 가장 큰 동인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풍설서를 통해서 이익을 유지하고자 했던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 제공 주체인 네덜란드였다. 17세기 초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일구어 내면서 네덜란드 왕국은 최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당시에는 바타비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러 해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쇠락하는 스페인·포르투갈 세력에 관한 뉴스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막부에 전달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객관적 뉴스가 네덜란드의 대일본 무역 독점을 방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전달의 ‘솔직성’이 흔들리게 된 계기는 영국 세력의 팽창으로 인한 네덜란드의 세력 약화이다. 예컨대

인도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세력다툼 결과로 인한 영국의 득세 소식은 막부에 객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³⁶⁾ 네덜란드는 이를 정치적 사안보다는 경제적 사안으로 해석하여 막부에 보고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松方冬子, 2010/2023, 136-137쪽).

하지만 세계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네덜란드에게 솔직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언제까지나 세계의 변화를 막부에 숨길 수는 없었다. 막부 역시도 이러한 사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에 관한 소식을 네덜란드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지는 않았다.

막부는 자신들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여 4가지 항구³⁷⁾를 통해서 첩보를 입수해 왔다. 막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덜란드가 정보 제공을 (그것이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이든지 간에)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막부 입장에서 네덜란드라는 유럽에 대한 유일한 직접 정보통을 대체할 곳을 바로 찾을 수는 없었기에 은근히 압박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네덜란드와 막부라는 풍설서의 공식적인 두 파트너 이외에 풍설서에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한 마지막 집단은 바로 통역사들이다. 네덜란드 통역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권력화되었기 때

36) 1757년 6월 서벵골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플라시 전투가 일어났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군대가 벵골의 태수와 프랑스 동인도회사의 연합군을 격파한 것이다. 이 전투의 결과로 1765년에 영국 동인도회사는 벵골에서의 징세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벵골에서의 우세를 결정지었다. 그때까지 오로지 통상을 위해서 아시아에 와있던 유럽인이 본격적으로 영토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훗날의 식민지 지배로 이어지는 커다란 전환점이었다(松方冬子, 2010/2023, 136쪽).

37) 에도시대 일본은 '쓰시마 창구'로 조선과, '사쓰마 창구'로 류큐와, '마쓰마에 창구'로 아이누와, '나가사키 창구'로 네덜란드인이나 당인과 연결되어 있었다(松方冬子, 2010/2023, 29쪽).

문에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상관의 말을 재단하기 시작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네덜란드와의 무역이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통사들은 네덜란드와 막부의 충돌이 생길만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편집해 풍설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松方冬子, 2010/2023, 216쪽).

이상과 같이 메이지유신 이전 약 300년 동안 일본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개별적인 지력 발휘를 기반으로 한 서양과의 교류가 이어졌고, 막부 역시 외교의 측면에 있어서 독립적인 결정 주체로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히 국사를 결정해 나갔다.

VI 결론

‘근세 조선과 일본의 차이는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나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한 줄로 표현되는 조선과 일본의 차이에는 매우 다양한 동인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각 세력들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우연의 힘 또한 매우 크게 작동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유럽으로 대표되는 국가는 네덜란드인데 본문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네덜란드가 개신교 국가로 돌아서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유럽과 일본의 연결고리는 17세기 초반 끊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독교 선교를 배제한 무역 독점이라는 매우 실리적인 선택을 통해 네덜란드는 17세기 중반부터 약 200년 동안 일본 내 유일한 서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 안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총 기술의 우수성을 감지하고 즉각적 도입을 결정한 나가사키 지방의 영주, 조총의 치명적인 기술적 단점을 전술 전략으로 극복해 일본 통일을 목전에까지 두게 되었던 오다 노부나가, 더 좋은 의술을 펼치기 위해 네덜란드 해부서의 우수성을 몸소 확인한 후 과감히 일본어로 번역 작업을 착수하여 이루어 낸 스기타 겐파쿠 등등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지력을 활용해 유럽으로부터 기술을 부지런히 들여온 개인들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개인들의 지력 발휘가 전반적인 일본의 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

하였다.

조선의 경우도 여러 우수한 개인들이 서양 문물과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간헐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일본에서와 같이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내어 놓지는 못하였다.

이 차이가 발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지력의 독립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지력 사용의 최고위층이라 할 수 있는 조정과 막부의 지력 사용이 독립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고위층의 지력이 독립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비교적 구성원들의 독립적 활용 역시 허용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고위층의 지력이 독립적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구성원들의 독립적 활용 역시 질식시킨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정은 모든 국민이 선택(투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교육은 모든 개인을 지력의 주체로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연속된 연구들(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적 근대화 과정, 일본의 교육적 근대화의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전반적인 주입식 교육 방식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을 독립적 지력 주체로 만드는 것에 배치되는 교육방식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개인의 독립적 지력 활용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는 현 시점에 옆 나라의 점진적인 근대화에 대비되는 뼈아픈 근대화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³⁸⁾

이번 연구는 일본의 성공적이고 속도감 있는 교육적 근대화 개혁을 가능케 한 메이지유신 이전의 배경들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메이지유신 막전막후에 실제로 입안된 교육적 개혁 입법 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전 근대화를 위해 축적된 역량들이 실제로 교육적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가에 관하여 탐구하도록 하겠다.

□ 논문 투 고 일 : 2024.01.08

□ 심 사 완 료 일 : 2025.01.31

□ 게 재 확 정 일 : 2025.01.31

38) 역설적이게도 메이지유신 이후 교육 개혁에 있어서 일본은 이전의 자유로운 지력의 활용이라는 경로에서 약간은 벗어나,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강화'라는 근대 서양의 자유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근대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이권희, 2017, 126-127쪽).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근 국가들의 자유를 질식시킨 일본 제국주의의 등장이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21). “일제강점기 학교관 형성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9권 4호 1-21.
- 권영민 (2023).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제도 형성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한국교육문제연구』 41권 2호 105-124.
- 김정인 (2017). “프랑스 제3공화정 초기 공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체계의 완성”, 『서양사론』 132권 141-171.
- 이권희 (2017). 『국가와 교육 - 메이지 국민교육사』. 서울: 케포이북스.
- 이윤미 (2014). “콩도르세의 자유주의적 공교육 개혁론의 시사점”, 『한국교육사학』 36권 3호 153-182.
- 이종각 (2013). 『일본 난학의 개척자 스기타 겐파쿠』. 파주: 서해문집.
- 주요섭 (1931). 『조선교육의 결함』. 세계서원.
- 松方冬子 (2010). オランダ風説書 - 「鎖國」日本に語られた「世界」. 이새봄 역 (2023). 『네덜란드 풍설서 - 세계가 쇄국 일본에 전해지다』. 서울: 빈서재.
- Nicolas de Condorcet (1791). *Cinq Memoires Sur L'Instruction Publique*. 이주환 역(2019). 『콩도르세, 공교육에 관한 다섯 논문』. 서울: 살림터.
- 우리역사넷 선교사의 파견. (2024년 12월 31일).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30_0060_0030_0010&whereStr=
- Stephen Scott (Producer). (2021). *Age of Samurai: Battle for Japan* [Television documentary]. Netflix.

ABSTRACT

An Educational Philosophical Study on the Formation of Japanese Modern Education

Kwon, Yeongmin

Dept. of Education

KNOU

The event that opened the door to Japan's modernization was the Meiji Restoration in 1868, and Emperor Gojong of Joseon attempted modernization through the Gabo Reform in 1894. As a result of the two reforms, as we already know, one country rose to the ranks of imperialist powers and colonized many countries, while the other country failed to achieve independent modernization and became a colony. Although there was not even a 30-year gap between these two modern reforms, the results of the two reforms received by the two countries were vastly different.

This study examined what, other than the physically apparent time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modern reforms, changed the outcome of the reforms and the fate of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herlands and Japan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mid-19th century, which served as the background for Japan's late 19th-century modernization reforms. Unlike Joseon, Japan maintained a link with Europe and the world through its counterpart, the Netherlands, and several entities that had the opportunity to utilize

their intellectual power in various places during that period provided a solid foundation for rapid modernization.

| **Key Words** | Reformation, Dutch studies, Oranda Fūsetsugaki, intelligence